

The Year of Three

Ferdinando Frega

GILLETTE: 셋의 해 — 제1막

그해로부터 33년이 지났다. 셋은 내 삶에, 나라는 존재에, 내가 하는 일에, 나의 실존 그 자체에 엮여 있는 숫자다 —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 나는 60년을 기다려야 했다. 20의 세 배, 하나의 삼각 측량, 기도처럼, 삼각형처럼, 어머니 Gillette의 세 개의 면도날처럼.

숫자 3. 파생된 수가 아니라 — 소수다. 그것은 한꺼번에 세 가지를 뜻한다. 인간의 완전함.

그해에 나는 결혼을 결심했고, 오직 나만을 위해 만들어진 회사의 임명을 받았고, 프리메이슨 입회를 받아들였고, 내 아이들의 탄생을 지켜보았고, 동료들보다 세 배 많은 이익을 거두었고, 33퍼센트 증가라는 성장 폭으로 직업적으로 성숙했다.

액자에 넣어 둘 만한 한 해였다 — 33년이 지난 오늘, 나는 이렇게 말한다.

그해는 또한 러디어드 키플링의 *『정글북』*과 처음으로 진지하게 만난 해였고, 이어서 *『만약에—』*와 만난 해였다. 아들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 그 아들에게 쓴 시였다.

나는 한 남자로서, 한 아버지로서, 한 프리메이슨 단원으로서 깊이 감동했다. 그 뒤로 내 삶은 결코 예전과 같지 않았다.

러디어드 키플링 — 작가, 시인, 프리메이슨 단원, 기자. 1865년 인도에서 태어났다. 정확히 나보다 100년 앞서. 세상을 떠난 지 이제 90년.

오늘 나는 인도 출신의 한 남자가 내 가족에게 모든 것을 준 회사의 키를 잡고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보고 있다.

나는 그 역시 *『만약에—』*를 읽었기를 간절히 바란다.

환영합니다, 회장님. 회장님은 저의 회장님이기도 합니다 — 제 어머니의 수호자이시기 때문입니다. 그 점에 대해 저는 그저 감사드릴 뿐입니다.

Ferdinando